

전북자치도, 에너지산업 글로벌 핵심기지로

민관산학연 협력체 'RE100·CF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출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산업의 세계 중심지 도약을 위해 민·관·산·학·연이 협력체계를 구축, 특별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2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특별한 만남, 새로운 시작, RE100·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라는 슬로건 아래 '2024 신재생에너지 박람회'와 함께 RE100·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 발대식이 열렸다.

전북자치도는 2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특별한 만남, 새로운 시작, RE100·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라는 슬로건 아래 '2024 신재생에너지 박람회'와 함께 RE100·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북자치도가 지난 2004년부터 에너지산업의 육성 의지를 다지며 개최해 온 신재생에너지 박람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기포럼과 미래 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민관산학연 공동협력체인 RE100·CF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발대식, 기업 우수 에너지 기술을 선보일 홍보관 인제인성사업으로 배출된 석·

박사들의 논문전시 등으로 운영됐다. 박람회 1부 정기포럼에서는 전북자치도 에너지산업의 위상을 소개, 최신 기술 동향과 정보 교류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석학들이 모여 논의의 장이 열렸다.

포럼 주제 발표에는 △전북연구원 장남정 센터장이 탄소 중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 △한국전기연구원 김태진 박사가 '새만금 에너지 국가중심실증연구단지 구축 및 활용 사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중희 교수가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기술의 현황과 발전방향 △군산대학교 장대현 교수가 '에너지 플랫폼을 말한다'에 대해 강연을 했다.

박람회 2부 얼라이언스 발대식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강임준 군산시장, 에너지분야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기업 대표, 학계 및 학회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에너지산업 육성과 RE100·CF100 달성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공동선언문 낭독과 참여기관들의 업무협약 이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KAIST 손정락 교수의 '신에너지 경제 시대: 정책과 시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신재생에너지 실증 등을 위한 혁신인프라가 집약돼 있어 국가 차원의 에너지산업을 실행시키는데 최적의 장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북자치도가 에너지산업의 주체가 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관산학연이 함께 공동협력하는 혁신활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RE100·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를 구성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농협이 21일 남원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와 웅정리마을에서 '2024년 농촌으로 찾아가는 왕진·청춘버스' 첫 운행을 개시했다.

전북농협, '왕진-청춘버스' 첫 운행

농업인 건강증진·활력 넘치는 행복농촌 조성 박차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남원시(시장 최경식), 춘향골농협(조합장 김영규)과 함께 21일 남원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와 웅정리마을에서 '2024년 농촌으로 찾아가는 왕진·청춘버스' 첫 운행을 통해 조용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촌의 고령·취약농업인에게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농업인 실익사업이며, 전북농협만의 특색사업인 청춘버스(조합장 김원철), 농협파트너스대 표이사(이범식),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도 함께하며 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선화 과정은 "원에 체험 활동은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 향상과 식물 친밀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며 "어린이들이 색다른 체험을 통해 농업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농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청춘을 선사하기 위한 청춘버스에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전주거전대(총장 조희철),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 학생들이 참여해 공연·한마당 어르신 말벗 서비스 헤어·피부·네일 미용서비스, 인성네트워킹 등 대학생들의 생기 넘치고 재기발랄한 재능기부가 이어졌다.

이날 KIS전주방송총국(총국장 박경영),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조성찬),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 농협파트너스대표이사(이범식),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도 함께하며 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선화 과정은 "원에 체험 활동은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 향상과 식물 친밀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며 "어린이들이 색다른 체험을 통해 농업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21일 용담호와 용담호 상류 하천주변에 쌓여있는 아적폐비 현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녹조발생상황을 점검했다.

송호석 환경청장, 용담호·상류 녹조상황·아적폐비 현장점검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21일 용담호와 용담호 상류 하천주변에 쌓여있는 아적폐비 현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녹조발생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송 청장은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관계자로부터 녹조대책을 보고받고 "지난해 용담호에 '경계 단계의 조류경보가 발령된 만큼 올해에는 녹조저감을 위해 녹조제거설비 확대운영 등의 강화된 대책들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용담호 상류 하천 주변에 쌓여있는 아적폐비 현장을 둘러보면서 진안군 관계자에게 "아적폐비로 인해 녹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마철 전까지는 아적폐비가 모두 수거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옥기 기자

농촌진흥청, "반려식물 관리, 어린이 원예 체험으로 배워요"

오늘부터 어린이 대상, 식물 분갈이 체험 활동 운영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식물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22일부터 2024년 원예 체험 활동을 운영한다.

만 6~10세 어린이 대상, 진행되는 원예 체험은 어린이들이 식물 성장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체험 활동은 매주 수요일 1회(1일 1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완주군 소재)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반려식물 재배 조건과 관리 방법 등 간단한 이론 수업을 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22일부터 2024년 어린이 원예 체험 활동을 운영한다.

은 뒤 분갈이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체험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과일 '하레조생', 레몬 '제라몬' 등 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아·태국가 공적연금 국제연수과정 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보건복지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공동으로 '제10차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과정'을 21~24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국제연수과정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한국 국민연금제도 및 운영 방법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 수요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18개 국가

181명의 연수생을 배출하였다.

이번에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 5개국 12명의 정책 담당자 및 실무자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운영 방법을 배우고자 한국을 찾았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11년 만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로 한국 국민연금제도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각광받는 이유이다.

2023년도에는 기금 운용 수익률 13.59%라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으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제10차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과정을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며 1.036조 원의 기금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도 아·태지역 국가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김옥기 기자

김제농협, 생분해성필름 논 콩 멀칭과중 시연회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20일 부령면에 위치한 논 콩 재배지에서 정부 정책인 2050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분해성필름 콩 멀칭과중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시연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유통과장 김신중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 윤인석 진봉농협조합장 임영택 농협양곡사업국장 방철환, 김제시지부장 조원석 등과 김제농

협 임직원, 관한농 임직원, 논 콩 재배 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생분해성필름 멀칭과중은 농작물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에너지 등의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토양의 침식을 방지·토양수분을 유지, 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로 고령화 사회의 농업 농촌의 인력난해소와 노동력절감에 효과적 일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